

제주여민회

홈페이지: <http://www.jejuwomen.kr/>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134 (3층)

전화 : 064-756-7261

팩스 : 064-756-7262

E-mail : jejuwomen@hanmail.net

30th 1987-2017 제주여민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평등과 평화,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운동단체입니다.
1987년 창립 이후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며 성차별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제주여민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제주여민회는 여성차별과 폭력없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제주여민회는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제주여민회는 여성주의 문화확산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제주여민회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이 확대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제주여민회는 다양한 단체들과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 합니다.

CI 소개



평등과 평화,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제주여민회의 운동방향을 상징

- 여성(WOMEN)들이 손을 잡고 연대하는 모습을 상징함
- 여성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인 보라색을 활용
- 세 가지 다른 느낌의 보라색은 제주에 있는 다양한 여성과 소통함을 보여줌

창립선언문

“ 1987년 제주여민회 창립 선언문 ”



모든 인간은 남녀를 막론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의 현장에서 참담한 피해자가 되어 왔다. 이 땅의 가부장적인 성폭력, 성차별의 공세 앞에서 여성은 순종적 인간으로 길들여져 왔고 하나의 주체적 인간으로 보장받기는 커녕 인간의 본원적 건강성마저 크게 훼손되었다.

여성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으며, 그 위에서 물질만능의 비인간적 요소들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땅의 여성들은 값싼 노동력을 팔아 연명하는 근로여성으로서, 농사일과 가사일에 시달리는 농촌여성으로서, 가난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도시빈민여성으로서, 가정에 고립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도시주부로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부당한 삶을 강요당해 왔다. 따라서 여성의 인간화는 가정을 포함한 전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땅의 여성들은 의제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민주사회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들은 우리에게 부과된 막중한 역사적 과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대중의 미흡한 정치적 각성과 기존의 여성운동이 일부 여류명사들에 국한되어 사회적 지위 향상에만 치우치는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여성은 여성해방이 단순한 가사노동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진정한 불평등 구조의 해소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제 이 세계의 절반인 우리 여성은 이제껏 억눌려 온 권익을 되찾고, 여성의 인간화와 사회의 민주화 실현을 위해 강력한 세력으로 나설 것이다.

한반도의 끝 제주도는 3차산업의 비대로 인한 파행적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속에서 여성의 상품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농촌여성들은 과중한 농사일, 해녀일, 가사노동 등 3중의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여성노동의 착취에도 불구하고 제주여성들의 정치의식은 매우 낙후하고 여성의 불평등을 호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긴 침묵을 깨뜨리고 우리들 문제를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들 자신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제주여민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진정한 인간의 해방을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제 제주여민회는 이 땅에 진정한 여성의 인간화와 사회의 민주화, 조국의 평화적 민족통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제주여성여여!

제주여민회의 깃발아래 하나가 되자!!

1987년 11월 29일

희망선언문

“ 희망선언문 ”



제주여민회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대장정에 오르려 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 개인이 가진 생명력에 날개를 다는 평화로운 세상, 여성의 눈으로 살펴보아 소외됨이 없는 희망이 가득한 세상으로 향하려 합니다.

1987년 창립 이후 20년을 지나온 제주여민회는 이 사회에서 여성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갖추고, 지역사회 여성들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랐고, 좌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고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가치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그 힘으로 제주여민회는 한 발 한 발 평등세상을 향한 큰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주여민회와 함께 많은 여성들이 사회의 민주화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조국의 평화적 민족통일을 위한 행진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직 미완성의 과제들이 많지만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력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이 사회에서 함께 나누는 '살림의 문화'를 이루어내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 하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들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 하나. 가부장제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위계를 넘어서서 여성들이 사회 전 영역에서 즐겁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고 공유할 것입니다.
- 하나. 제주문화를 여성의 눈으로 재발견하고, 여성주의 문화를 확산하여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 하나. 사회 각 영역에서 대안사회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고, 현실에서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일상에서 나누고 실천할 것입니다.

2007년 11월 24일
제주여민회 창립20주년에

서른맞이 희망선언문

“ 서른맞이 희망선언문 ”



민주화 열망이 봄물처럼 솟구치던 1987년 11월 29일.

제주여민회는 평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인간화를 선언하면서 창립되었습니다.

사회의 민주화, 조국 평화 통일의 염원도 함께 끌어안고 시작한 제주여민회는 제주여성을 대표하는 시민사회의 한 축을 감당함과 동시에 희망찬 '살림'의 문화를 선언하며 일상의 변화를 모색하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우리 사회는 침묵한 상황으로 내몰려졌고 제주사회 또한 낮은 정치 상황으로 구시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쌓여만 갔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다시 묻는 극한 상황마저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2017년입니다.

서른 살의 제주여민회는 다시 조직을 하나둘 재정비해냈고 성평등한 제주 만들기라는 본연의 과제를 기운차게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솔한 어려움 속에서도 18회까지 쉬지 않고 이끌어온 제주여성영화제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매년 영화를 통해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일상의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제주도민들과 성평등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시작된 성인권교육사업은 견고한 제주사회의 가부장문화에 균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결같이 제주여민회를 지켜온 1세대 주춧돌 회원들과 새로운 제주 2030 '뉴페이스'들이 사실과 날실로 엮여 제주여성의 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는 아낌없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촛불 혁명이 가져다 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제주에서도 최초로 100여명의 다양한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 100인 원탁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성들은 치열하게 제주사회의 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제주여성이 일어서면 제주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서른,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에 참 적당한 나이입니다. 스무살 풋풋한 젊음의 에너지는 생기를 잃지 않았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작은 연련도 한술 엮어진 근사한 나이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새로이 다가오는 십년의 시간을, 두근거리는 기대감을 안고 다음의 꽃봉오리를 피워보고자 합니다.

하나, 제주 여성의 공적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를 강력하게 받아 안겠습니다. 광범위한 가부장적 관행을 거둬내고 성평등 가치 실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정치영역 및 각종 공적 활동분야에서 신뢰할만한 여성들이 충분히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 여성들이 강화된 대표성으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제를 섬없이 공론화해낼 수 있도록 끈질기게 여성의 세력화를 이뤄내겠습니다.

하나, 일상에서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달려겠습니다. '평화의 섬'으로 명명된 제주가 여성들의 일상의 삶에서 실질적인 안전과 평화를 담보해내는 사회가 되도록, 여성주의 소통과 공간을 바탕으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안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문화운동으로 가부장 문화 뒤집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여성운동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제주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끈질기게 뒤집고, 성평등 담론과 인식 · 행동체계의 변화까지 이르는 성평등 대안 문화 운동을 실효성 있게 확산해내겠습니다.

성평등 제주 사회를 위한 제주여민회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기분 좋은 서른의 시작.

서른, 피어나라!

2017년 11월 25일
제주여민회 창립30주년에

연혁

『제주여민회』 기증리스트

연번	도서명(자료명)	자료유형	등록번호
1	1987~2006 총목차집 - 합본호 시리즈 1	자료집	GL7721
2	1987~1993 제주여성 - 합본호 시리즈 2	자료집	GL7722
3	1994~1998 제주여성 - 합본호 시리즈 3	자료집	GL7723
4	1999~2001 제주여성 - 합본호 시리즈 4	자료집	GL7724
5	2002~2004 제주여성 - 합본호 시리즈 5	자료집	GL7725
6	2005~2006 제주여성 - 합본호 시리즈 6	자료집	GL7726
7	돋움 : 2007 가을, 겨울호 통권 77호(제주여민회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	자료집	GL13107
8	제주여성 2006년 겨울호 통권 74호	정기간행물	
9	제주여성 2007년 봄호 통권 75호	정기간행물	
10	제주여성 2007년 여름호 통권 76호	정기간행물	
11	제주여성 2008년 봄호 통권 78호	정기간행물	
12	제주여성 2008 여름호 통권 79호	정기간행물	
13	제주여성 2008 가을호 통권 80호	정기간행물	
14	제주여성 2008 겨울호 통권 81호	정기간행물	
15	제주여성 2009 봄호 통권 82호	정기간행물	
16	제주여성 2009 여름호 통권 83호	정기간행물	
17	제주여성 2009 가을, 겨울호 통권 84호	정기간행물	
18	제주여성 2010 통합호 통권 85호	정기간행물	
19	제주여성 2011 봄호 통권 86호	정기간행물	
20	제주여성 2011 여름호 통권 87호	정기간행물	
21	제주여성 2011 가을호 통권 88호	정기간행물	
22	제주여성 2011 겨울호 통권 89호	정기간행물	
23	제주여성 2012 봄, 여름호 통권 90호	정기간행물	
24	제주여성 2012 가을, 겨울호 통권 91호	정기간행물	
25	제주여성 2013 봄, 여름호 통권 92호	정기간행물	
26	제주여성 2013 가을, 겨울호 통권 93호	정기간행물	
27	제주여성 2014 봄 통권 94호	정기간행물	
28	제주여성 2014 여름 통권 95호	정기간행물	
29	제주여성 2014 가을 통권 96호	정기간행물	
30	제주여성 2014 겨울 통권 97호	정기간행물	
31	제주여성 2015 봄 통권 98호	정기간행물	
32	제주여성 2015 여름 통권 99호	정기간행물	
33	제주여성 2015 가을, 겨울호 통권 100호	정기간행물	
34	제주여성 [툼] : (사)제주여민회 창립 15주년 기념 특집호	자료집	GL13106
35	제주여성 2017 봄 통권 105호	정기간행물	
36	제주여성 2017 여름 통권 106호	정기간행물	
37	제주여성 2017 가을겨울 통권 107호 (제주여민회 창립 30주년 기념호)	정기간행물	